



<아버지께 가는 길, 생령을 약속하시다>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무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칭 포교베네딕도수녀회 서울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사도 15,1-2,22-29

제2독서: 묵시 21,10-14,22-23

복음: 요한 14,23-29

청년 성가집 입당: 222

봉헌: 75

성체: 178

파견: 170

◆ 화답송



(후렴)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래들을 이끄시니, 거래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면 움직인다”

사랑을 시작하면 뇌의 어떤 부분이 마약 성분이 들어갔을 때처럼 움직인다고 한다. 움직이는 것이 뇌뿐이겠나?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몸을 일으키고 밥을 하며 일을 하고, 그의 곁에 머문다. 몸만큼이나 마음도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다.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움직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좀처럼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움직임이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 곧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되라 하신다. “사랑하면 움직인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

성모 성월 (성모의 노래)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고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힘을 펼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도다.
 - 권세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 미사 봉헌

● 연미사

민병택 베드로
이영우, 이태모
안경일 마틴

봉헌

가족
이상홍 스테파노
안영옥 분다

● 생미사

바자회 때 수고한 모든 분들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박재호 베네딕도, 김성중 다투
김종선, 주현경, 임금중, 정다경

분당

이미숙 안나
구세주의 모후Pr
백승훈 야고보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대형인쇄 KOR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b/t 40&41st)
212.203.0072 (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5월 26일	박민재 아그네스	조소연 마르티나	김우현 에제키엘	양정운 젼마	박시현 마리아	성미나 김 이	한채희 이원지	진문자 김승애 김영숙 이지훈 민완준 민덕미 조리디아 박신희
6월 2일	주세정 레이첼	안상민 그레고리오	김희진 마르가리타	양소영 엘리사벳	김예슬 아네스	박희정 안효준	박지현 홍 찬	이영혜 신정목 이경자(울) 김효진 이경자(벨) 이서원 강호영 이경숙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오늘**은 불우이웃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경애원 후원금**은 다미아노 홀 입구에서 받습니다.

➢ **사목회의**가 2층 컨퍼런스 룸에서 11시 15분에 있습니다.

➢ **†의 길 & 성체 조배**가 매월 첫째 주일 오전 8시 30분에 아래 성당에서 있습니다.

➢ **6월 친교실 봉사**는 우리 즐거움의 원천Pr, 희망의 모후Pr입니다.

◆ 공 지 사 항

➢ 바자회 후원에 감사합니다☺

제 21회 나눔의 바자회에 물심양면으로 마음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후원금 : 익명(1) 박기목 안선정 김경련 방윤미 김종선 린다김 박정자 강혜숙 구달회 김애희 백승훈 조병모 강호영 정인해 김영숙 유기호 신윤길 미스코리아 더큰집 원조 KEB하나은행

후원해 주신 물품 : 의류, 가방 외

바자회 후원금과 판매 물품에 후원해 주시고 헌 옷을 깨끗이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자회 결산은 정리되는 대로 주보에 실을 예정입니다.

➢ 6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12일만 휴강)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주 일 (30일만 휴강)	오후 1시30분~2시50분	

➢ 첫 고백 안내

일시 및 장소 : 6월 매주일 8:40am~미사 전/아래성당 고백소
대상 : 지난 파스카 성야 때 세례견진을 동시에 받은 분들

➢ 주일학교 교사 모집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5월 '목주기도 봉헌'

-시작 : 오전 9시, 윗 성당

날짜	주관단체	목주 기도
오늘	성령기도회 & 양업회	영광의 신비

☆방법 : 목주의 기도 3단까지 봉헌한 후 성모성월기도로 마칩니다. 나머지 2단은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 '처음처럼' 성가대 단원 모집

청년성가대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성현 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0
감사헌금	\$ 600
합 계	\$ 600

❖ **감사 헌금** : 이미숙 이영애

-바자회 경품 확인 및 수령안내-

prize	No.	name			
Cash \$1000(1)					
1 st prize	11153	이숙자			
Dyson Fan(1)					
2 nd prize	13201	서명애			
Venta Air Purifier Humidifier(1)					
3 rd prize	10255	김 글라라			
Apple Airpods(4)					
Prize	No.	Name	Prize	No.	Name
4 th prize	01155	여선구	4 th prize	06745	Jocelyne Guidi
4 th prize	06043	필부영	4 th prize	12113	Min Lee
Amazon Gift Card(5)					
5 th prize	04269	김영숙 카타리나	5 th prize	11023	김지영 마리로사
5 th prize	10201	홍명호	5 th prize	13663	Scott Blass
5 th prize	10022	심호섭			
Infinity Travel Pillow(10)					
6 th prize	12224	안재률 바오로	6 th prize	11083	박상수
6 th prize	10355	N/A	6 th prize	12410	김선희 루시아
6 th prize	06531	김영숙 카타리나	6 th prize	12128	Shanta Fripp
6 th prize	10005	김승애 클라라	6 th prize	12888	하요한
6 th prize	11420	김영희 안나	6 th prize	11354	신종욱
Windproof Umbrella(10)					
7 th prize	06388	양 마리아	7 th prize	10107	Alex Richardson
7 th prize	01263	박신희 리나	7 th prize	10514	홍필립
7 th prize	06789	임종혁	7 th prize	10064	백민주
7 th prize	10277	박 엘리사벳	7 th prize	12678	허 가브리엘라
7 th prize	13211	권은희 스텔라	7 th prize	11417	이미순
Starbucks Gift Card(10)					
8 th prize	01821	양 마리아	8 th prize	10741	구영희
8 th prize	10541	최나은	8 th prize	12754	윤정균
8 th prize	13303	고현희	8 th prize	10369	신 빼르베뚜아
8 th prize	13004	박수민	8 th prize	13258	조 마태오
8 th prize	12674	이 카타리나	8 th prize	10239	강미란

*6월 30일(주일)까지 수령하지 않는 상품은 무효처리 됩니다.

“성경 맛들이기” - 판관기

판관기는

여호수아서에 이어지는 성경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부족연맹을 이루고 살게 된다. 그러다 야훼 대신 가나안 신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벌을 받아 주변에 사는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고통스러워 잘못했다고 빌면 하느님께서 판관을 세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신다. 판관기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판관’이란

‘판관’은 판가름하는(판관 11, 27)일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사실 ‘재판관’이라기보다 ‘지도자’라 부르는 게 더 정확한 의미이다. 평상시 그들은 국내외 정치·사회·종교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생활하지만, 전시에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판관들은 이후에 등장하는 임금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권력을 세습하지 않고 종신직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판관들의 구분과 활동

판관기에 등장하는 판관들은 ‘대판관’과 ‘소판관’ 두 부류로 구별된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관련 본문의 분량 차이로 말미암은 것인데, 대판관의 경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으로 부각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황이 보도되는 데 비해, 소판관의 경우 아주 간단한 인물 소개만 되어 있다.

대판관(활동상이 자세히 기록됨)	오토니엘(유다:3,7-11), 에훗(벤야민:3,12-30), 드보라(에프라임:4,1-5,31), 기드온(므나쎄:6,1-8,35), 입타(갈앗:11,1-12,7), 삼손(단:13,1-16,31)
소판관(활동상이 간략히 기록됨)	삼가르(3,31), 톨라(이사카르:10,1-2), 야이르(갈앗:10,3-5), 입찬(베들레헴:12,8-10), 엘론(즈불론:12,11-12), 압돈(피르아톤:12,13-15)

또한 이들은 시대 순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지도자가 아니라, 각 지방을 무대로 산발적으로 활동한 이들이었다. 따라서 이들 중에는 활동 연대가 비슷하게 겹치는 경우도 있고, 출신지도 주로 중부 산악 지대로 편중되어 있다.

‘판관기’ 라는 성경 이름

가나안 정착에서부터 왕정이 수립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외적과 맞서 싸운 12명의 판관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해서 그렇게 붙여졌다.

여호수아,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 하권과 같이 묶어서 전기 예언서 또는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부른다.

저자

뛰어난 영웅이나 용사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민족에게나 설화 또는 민담으로 전해진다. 이런 민담은 성격상 오랜 시일을 거쳐 다듬어지고 덧붙여지기 때문에 백성들 모두가 공동저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저런 민담들이 왕정시대에 한데 모아져 책으로 기록되었다고 본다. 이 책을 신명기계 역사가가 전체적으로 다듬어 판관기의 틀을 잡았다.

집필 연대

가나안 정착 후 왕국 설립 전까지 겪었던 여러 차례의 이민족 지배와 거기에서 풀려난 체험이 민담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러다 기원전 9세기경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지고, 나라가 위태롭던 기원전 6-7세기와 바빌론 유배 이후에 다듬어지고 보충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꼴로 굳어졌다.

집필 목적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 자손이 불어나 백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써 모두 실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예배하는 참 공동체로 서지 못했음을 판관기는 잘 보여주고 있다. 우상 숭배에 빠져든 이스라엘은, 탈출기 이전의 상황과 같이, 그 벌로 이민족의 억압을 여러 차례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하느님은 모세와 같이 백성을 이끌 판관을 세워 해방시켜 주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판관기는 옛날 옛적 판관시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 주면서, 구원자이신 야훼 하느님만을 알아 모실 때 공동체 안에 억압이 사라짐을 일깨우고 있다.